

파올로 쏘레리의 아콜로지

— 씨빌 모호리 나기 —

10년전 처음으로 사막을 조직적인 개척지로 만들려는 스케치가 전시회와 출판물들에 의해 등장되었다. 마치 거대한 식물이 대지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으며 어떤 부분은 계곡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또 통신과 공동생활의 균을 가진 수직 축을 중심으로 버섯이 발생한 것 같은 모양을 한 것이 파올로 쏘레리의 Mesa City 이다. 그런데 쏘레리는 최근 線的 팽창과 구조적 분리를 이룬 그의 첫번째 유토피아를 선언했다. 그것은 아직은 워싱턴의 Corcoran 화랑에서 지난 4월 6일 막을 내린 그의 작품 전시회에 미완성으로 소개되었던 것 그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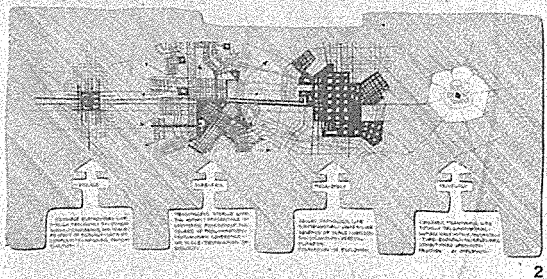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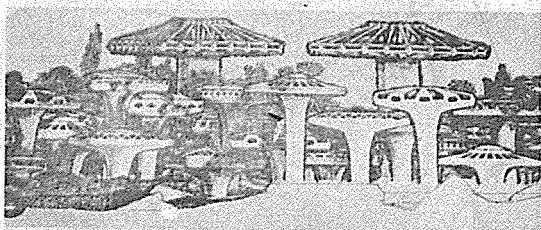
Mesa City는 독선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쏘레리를 추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것이다. 그는 1947년 후랭크로이드 화이트의 텔리신 그룹의 동료였었는데 후에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늘 붙어 다니자 이태리로 가서 건축적 훈련을 습득했다. 1949년에 텔리신을 떠났다는데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할 수 없는”이라고 썼듯이 그는 아마도 화이트에게서 그의 일생의 운명을 결정지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선구자적 각성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후에 몇년간 이태리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가우디식의 세라믹 공장을 설계했다. 그는 아리조나로 돌아와서 그 이후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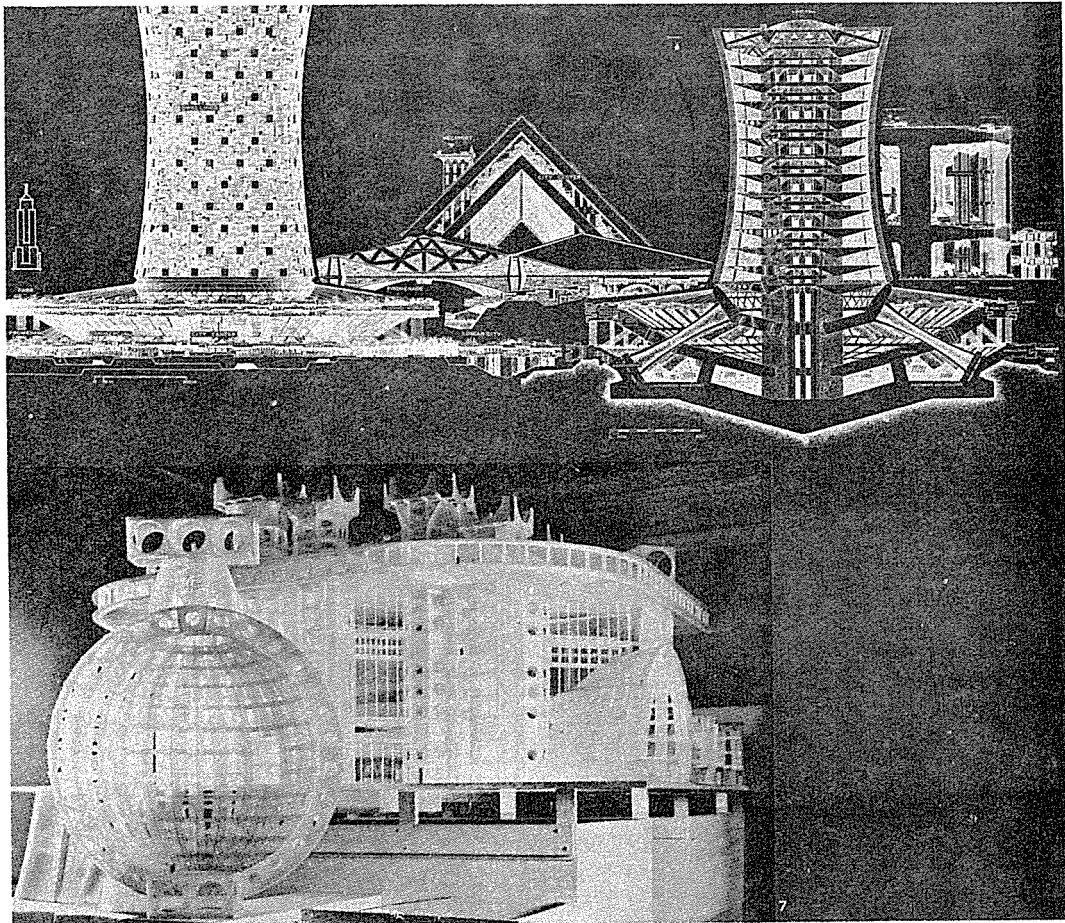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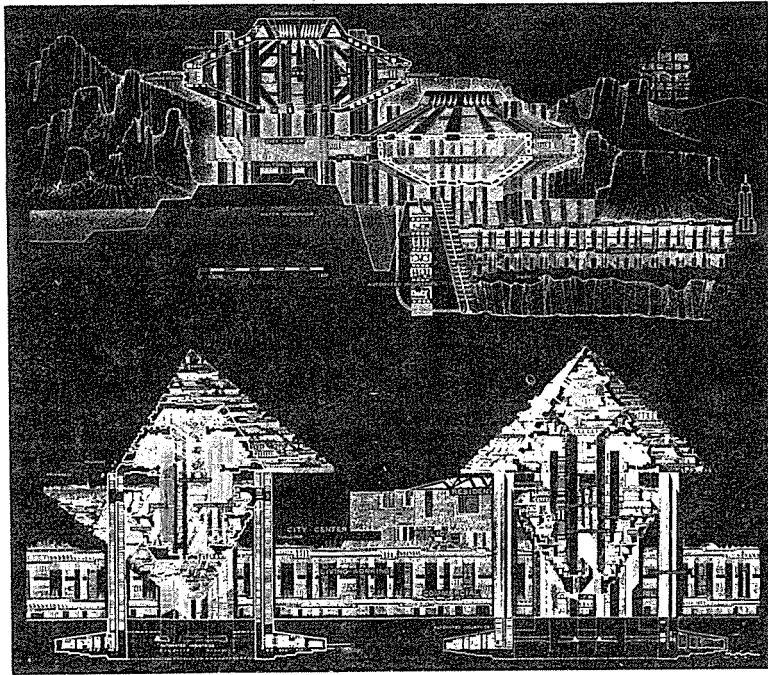
그의 활동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가 설계한 다리는 今世紀 가장 대담하고 또 구조적으로 가장 진보된 것들 중에 속하는 것이다. 그의 세라믹 wind-bell은 순수 수공예적 입장에서 만든 詩的인 생산품으로 선물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가 Cosanti 재단에 있을 때는 womb houses의 연쇄공장 공사를 견습하고 고도의 독창성을 지닌 흙의 형틀 제작 기술을 습득하였다. 또한 그는 20피트의 긴 두루마리에 30개의 새로운 도시의 안을 제안하였으며 “아콜로지-인간의 상상속의 도시(Arcology-The City in the Image, MIT 版)”라는 커다란 책에 그래프식으로 그려내어 그것을 볼려면 마치 땅꾼과 같은 기술을 요구할 정도다.

그의 혁명적인 계획의 기본 개념은 놀랄게도 단순과 친근이라는 논리이다. 인류는 마을을 떠나 도시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숨막힐 듯 답답한 지옥처럼 되어버려 다시 인간의 정력이 분산되고 황폐한 토양을 가진 교외에의 진출을 가져오게 하였다². 그래서 자연을 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의 순전히 표면적인 기교만이 발전되고 시간과 공간이 낭비되어지고 있는 도덕 퇴폐의 관념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수직의 팽창 또는 고도의 집중으로 향하는 인간의 수렴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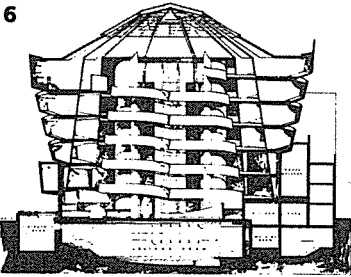
“아콜로지(Arcology-Architecture와 Ecology에서 형성됨)는 생태학적으로 가장 건전하고 집중(축소화)적인 방법으로 도시 인구를 거주시키는 광범한 세 단계로 이루어진 환경 구조이다. 아콜로지란 도시라는 것 이상의 무대로 상상된다.”

플랭크톤 육성산업과 같은 개방된 바다나 육지의 보호소 같은 것을 계획한 Novanoah I에서부터 水力 댐의 유용화 또는 협곡을 가로지르는 것 같은 다리의 내용을 가진 Babeldiga³와 같은 것에 이르는 모든 쏘레리의 안은 형태와 구조와 대지의 입장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120만의 인구를 두 개의 거대한 구조속에 집중시킨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구조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심볼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높이를 가진 것이다. 인구밀도는 수송관을 따라 상승하며 설치된 테라스식의 인공대지에 에이커당 665인으로 계획되었다.





Hexahedron⁴과 같은 다른 아콜로지들은 어떤 지형에나 적용될 수 있는 계획안이다. 動的 均齊를 이룬 두 개의 逆 피라미드는 수송관으로 지지되었으며 이것은 이미 계획된 하층만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체 속으로 주거관을 삽입시킬 수 있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 55만을 거주시키는 두 덩어리의 탑으로 된 Babel II D⁵는 화이트의 굳센하임 미술관⁶에서 보여준 쾨틸레버로 된 발코니와 자신의 실험실 및 프라이스 타워의 끈은 뿌리 조직을 절충시킨 것 같이 보인다. Corcoran 화랑에서 열린 그의 작품 전시회에서 보여준 커다란 프라스틱 모델은 內面으로부터의 아콜로지를 보여준다. 우아한 공중의 다리는 주거공간과 공동의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주거관이 삽입된 상부의 트러스 조직에 펼쳐진 테라스와 최근의 요소들이 서로 충분히 결합된 10층 높이의 後陣은 로마의 장대한 공간 경험을 약속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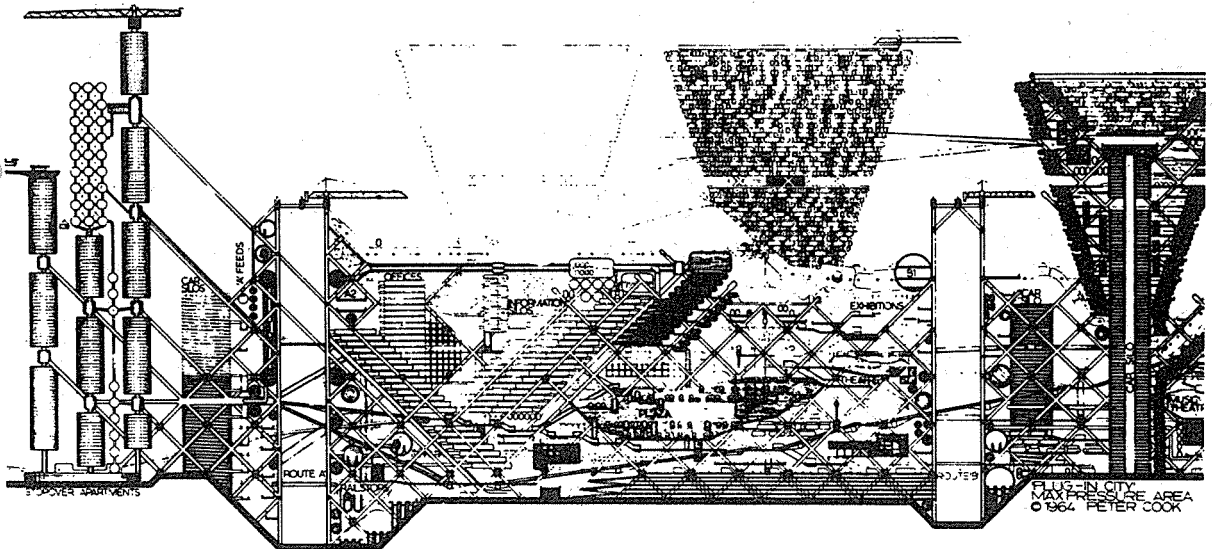


아콜로지에서 가장 작은 Arcosanti⁷는 쉴레리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 1200명이 일하고 배우기 위해 계획된 커뮤니티로 노동지원자들과 함께 1970년 여름에 착공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활약할 수는 없다.)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이상적인 대도시 운동들이 시작되어 쉴레리의 이 계획안들은 전혀 독특한 것은 아니다. 아키그램 그룹의 Plug-In City⁸ 또는 좀 더 자세한 계획안인 R. Anger와 M. Heymann의 Urbanisme Volumetrique⁹들도 역시 외부의 세계를 갖는 발코니와 테라스, 매달린 정원을 통해 대도시인을 연결시키는 매우 다양한 수직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논리적이고 예술적인 성질에 의해 공기조절 및 조명을 계산화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환경을 제안하였다.

쉴레리가 인류에게 미래의 발전을 주기 위하여 이상세계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건축가들과 다른 점에는 필수적인 세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있다. 그의 아콜로지들은 옛날의 도시중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커뮤니티이다. Plug-In City의 부활이 아니라 전혀 놀랄만한 평면형과 이론으로 다른 것들을 모두 깨어 버릴수 있는 혁명적인 原型이다.

둘째로, 쉴레리는 구조와 기술 이상으로 지상 최고의 미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당한 미에서 생기는 일반전인 혼란은 적절한 미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우리 생활의



핵심은 오직 미이다. 미적인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 낸 자연의 모조에 의해 'non-created'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고 열망하며 또 그것을 창조하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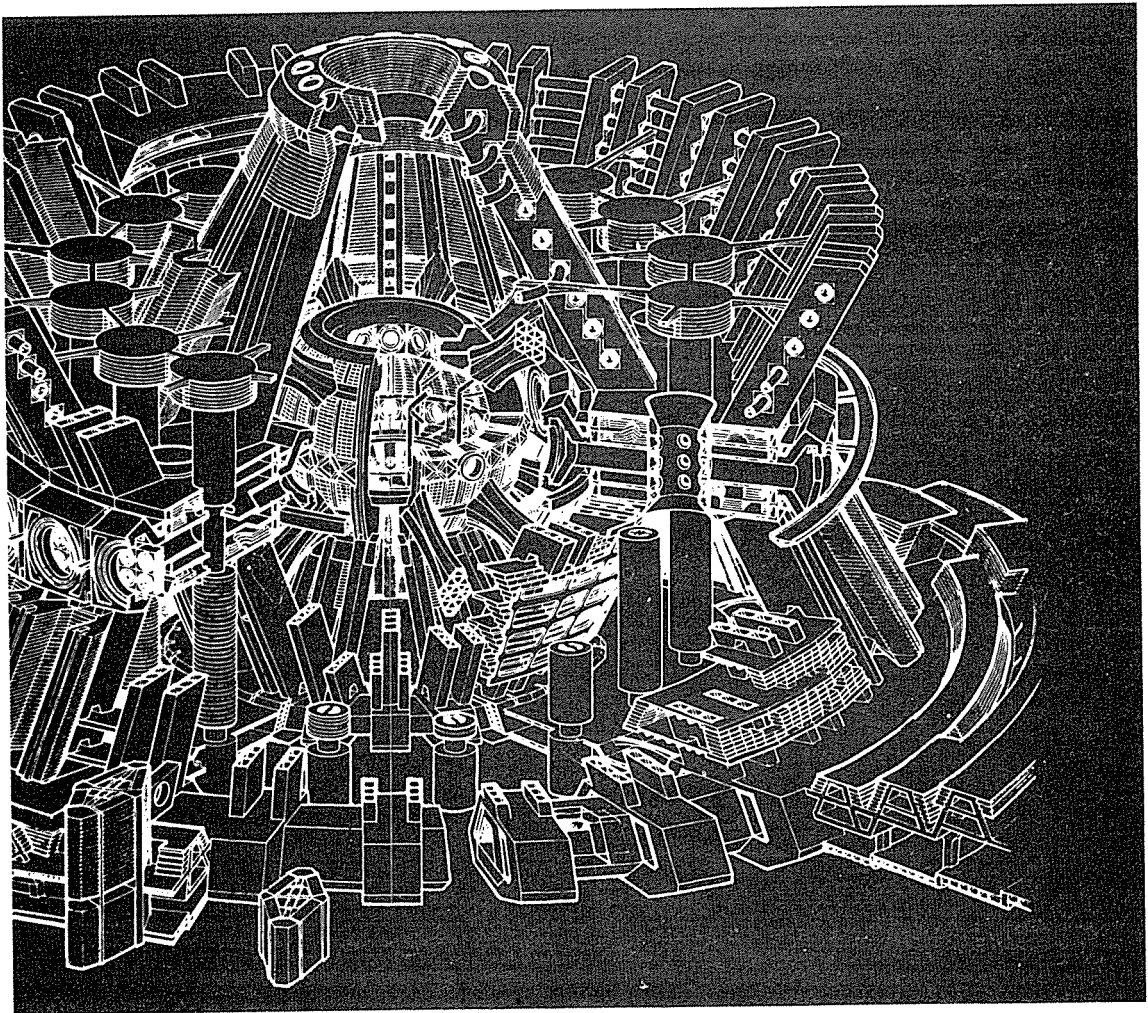
그러면서

'자연의 보존은 이제 건축적 사고에 있어서 정당한 주제가 되는 새롭고 급속한 도시형태를 창

조할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글에서는 라이트의 신념을 연상시키는 유사한 면도 있다.

"성장한 참나무가 즙을 남기고 죽는 것과 같이 인간은 건전한 미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인간과 그의 환경에 유기적 관계를 갖는 미를.....! 셋째로, 쉘레리는 그의 완전한 아폴로지의 근



거를 경제적, 사회적 또는 산업적 고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체계에 둔다는 점이다. 그 이론이 유기적 생활의 완전한 혁명을 위한 아콜로지적인 도시단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가장 심리적인 'Urschleim'(원시적인 진흙)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Neo-Matter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 인간 실존의 모든 사건에 관련을 가진 이 대단히 세분된 심리학적 인도주의의 총화는 그의 커다란 저서 "Arcology"에서는 22단원과 53개의 다이어그램으로, 또 전시회에서 목록으로서 판매된 "Documenta"라는 소책자에서는 또 다른 자세한 설명등, 그의 예도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

매우 한정된 이 지면에 그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집약하려면 쫄레리는, Henri Bergson의 Vitalism과 Teilhard de Chardin의 Telology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前者는 각 유기체의 최고의 생활력을 향하여 초 기계적 힘을 가진 원동력의 의미를 Entelechy(엔텔레히·哲學)에 있어서 형이상학의 圓現)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논리이며 後者は 인간의 개방적인 발전을 위해 의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최고의 위치를 향하고 있는 논리이다. 쫄레리는 베르그손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술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생긴 이 유기적 인간의 수렴성이라는 데에서부터 아콜로지의 도시라는 인간이 만든 우주에서 발견해야 하는 최대의 표현을 가진 두가지 원리를 推論하고 있다. 이 두가지 원리란 바로 복잡화(Complexification)와 축소화(Miniaturization)를 말한다. 쫄레리는 백타로서의 또는 평행한 진진으로서의 자연과 인간의 진화적인 과업을 주장함으로써 인류의 미래의 운명을 아메바로부터 우리의 유기체가 발생하는, 증대되는 복잡화와 연결시킨다.

쫄레리는 도시 계획에 있어 유기적 과학의 원리를 고도로 적용함으로써 그의 저서를 통해 기도하였던 바와 같은 축소화의 개념을 이루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의 語義에 관한 혁신(예를 들면 "새로운 자연" <neo nature>은 진화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축소화와 일치해야 한다) 중에서도 축소화라는 어휘는 가장 자극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너지라는 명확한 수렴성의 관점에서 축소라는 분량상의 속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정한 조직내에서 가장 복잡한 量子是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量子是 가장 축소화된 것이다.

도시에 있어서도 原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이다. 도시의 개념에 있어서 原者は 좀 더 복잡한 기계류의 무한한 연속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무한한 복잡성에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진보적인 결정론을 유도시킨다. 그것은 "의지의 행동으로서의 도시"라고 주장한 Ed Bacon을 부정하는 것이다. Bacon의 도시는 유기적 생활의 특유한 결정론으로부터 자유로서의 역사적 의식의 여명을 상상케 하는 것이다. 내가 믿건대 Bacon의 도시개념은 그것의 가장 유망한 견지에서 우리의 시간의 조절을 잘 못 해석한 것이다. 짧고 독창적인 의지는 우수한 기술을 이용하여 억제된 복잡성에 대항하여 근본적인 단순성의 재발견을 탐구한다. 밀도, 수직성, 미학, 에너지의 상호작용이라는 영구한 도시성격을 지닌 쫄레리의 이해의 범위에 의기양양하게 반발한 후에 컴퓨터화로 하여 교통의 조정과 주거지역을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Jersey Three'의 거대한 모형 앞에서면 누구나 기가 꺾이고 만다. 그리고는 누구나 Le Corbusier와 Doxiades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지를 직교하여 묶은 線의인 통신과 주거의 끊임없는 "粗密化"로써 "다량의 흐름을 가진 도시"를 위한 쫄레리의 계획에 전율을 느끼며 경청하게 된다.

혁명적인 계획을 창안하는 데에 10년이란 대단히 짧은 기간인 것이다. 50세의 쫄레리는 비밀이 새기 쉬운 과학적 장막의 유혹에 대항하여 충분히 그의 통찰력 있는 건축적 직관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정열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이미지로서의 아콜로지적도시위에 그의 다양한 재주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 쫄레리의 "축소화"의 정신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의 정신적인 母體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화이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한 변화의 법칙에 순종하는 인간생활을 위해 새로운 추상적 개념을 만들 예언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나 마찬가지로 현재도 역시 창조적인 건축가가 인간사회를 그려냄으로써 제공되는 것이다. 창조적인 건축가는 홀로 양심과 정당성과 영광을 안고 이것을 그려낼 것이다."